

전문성 있는 영유아 교사를 기대한다

우남희 소장

영유아들을 위한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아직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통합’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하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2014-2016년간 3단계의 실행계획을 통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이라 할 때, 구체적인 통합의 요소는 관리부처, 법·규제, 질 관리체계, 교과과정, 시설 기준, 재정,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특히 주목받고 있는 통합 요소는 ‘교사’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다. 교육·보육의 특성상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은 교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처와 재정이 통합되어 관리가 일원화되고, 동일한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해도 교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교육·보육 활동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해소와 함께,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생애초기부터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반적인 자질과 전문성 향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보통합이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시킨다 해도 배경일 뿐이지 양질의 전문성 있는 교사 투입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의 기본이라고 본다.

‘교사의 전문성’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사의 자격구분과 자격취득을 포괄하는 자격제도, 양성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처우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자격제도와 양성과정이 교육·보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촉진할 능력이 있는 교사를 배출하는데 바람직한 형태였는지, 그리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학력 기준과 자격구분에 있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에 차이가 있으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 기준, 실습 등 양성과정에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처우의 차이로도 나타나고 있어, 자격제도·양성과정의 정비 문제와 처우격차 해소는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뿔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보통합을 전제한 '교사 전문성 신장' 논의는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차이 해소'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자격취득이 어렵고 처우가 높으면 그만큼 인재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양질의 교육·보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적절한 처우, 즉 전문성 신장의 조건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요건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관한 발전적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선 학력과 자격기준을 상향평준화시키고 교과과정을 보완하며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온전히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더욱 단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특성임을 감안할 때, 좋은 인성과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이 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지원도 중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교육·보육 상황과 다양한 특성의 아동에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재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절한 근무 환경의 구비 등의 지원 방안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전문성'이 단지 자격의 유형과 급수, 최종학력, 이수한 교과과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결국 함께 교육·보육 활동을 하며 지켜보는 동료교사와 소중한 자녀를 맡겨두고 있는 부모가 인정과 신뢰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과 부모 그리고 동료교사로부터 진정한 영유아 교사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와 교사 스스로가 아동을 대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문성 향상의 노력을 할 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영유아와 부모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전문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